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공공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4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4(통30). 주 우리 하나님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반쪽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만, 이미 우리의 절반은 세상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늘나라의 삶보다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한 존재로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주님, 부정과 거짓이 일상화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청렴과 결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덜한 부정과 거짓이 기준이 되는 이 사회를 꾸짖어 바로 잡아주십시오. 서로의 부정을 가리기 위한 야합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시121:5,6 ..... 인도자  
 ♣ 교 독 문 ..... 100. 나라사랑(2) ..... 다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한성건 선생 II. 김인걸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288(통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다함께  
 성경봉독 ..... I. 왕상19:9-18 ..... 천승호 학생  
 ..... II. 눅16:19-26 ..... 이성범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I. 똑똑 ..... 박소진 선생  
 ..... II. 구령 메우기 ..... 김재홍 목사

- 찬 양 .....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위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들과 나 사이에 만든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됨을 잊지 마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합리화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합니다. 주위 사람들, 특히 고통당하는 이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살겠습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설교 : 손성현 전도사	9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박경선 선생	고정한 학생
	김기석 목사	김재흥 목사	조관행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허호범 박두석 박성실 이건화 정경례
	헌금위원	한완식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사랑은 혼돈을 평화로 바꾼다 (2)

### 이해하기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해는 ‘드러내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랑의 양상이다. 클라우디아는 이해를 필요로 했다. 만약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 했다면 어떻게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찾을 수 있었으며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그녀의 비명소리는 내적인 상처와 어둠, 고통의 싸인만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이었다. 모든 폭력적인 행동에는 ‘나를 좀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폭력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클라우디아로 돌아가 보자.

슈야파 라르슈 공동체의 지도자인 나디엔은 클라우디아를 돕기 위해 정신과의사와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 나디엔은 클라우디아에게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똑같은 일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클라우디아는 슈야파 공동체에서의 하루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와 각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질서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클라우디아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함으로 그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클라우디아와 같이 언어가 서툴러 일반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지내는 아이들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많은 시간과 깊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울음과 온갖 몸짓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소통하기**(communicate : ‘소통하다’는 뜻과 ‘성찬을 받다’는 뜻이 있다)

사랑의 세 번째 양상은 소통하기다. 소통은 사랑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어떤 아이가 큰 혼돈 가운데 빠졌다면 누군가 그 아이가 겪는 혼란이 무엇인지를 이름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것을 무어

라 이름 지을 수 없을 때 혼란과 고통은 커진다. 무엇인가에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이를 통해 이해에 이르게 된다. 죽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일들은 정확히 명명하지 않을수록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섹스나 섹스와 같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한 것들은 자유롭게 이야기 될 수 없었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사람들의 의식을 억압했다.

어린이들은 진실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 발견을 통해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혼돈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녀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화를 낸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모는 자신이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함으로써 그 자녀에게 진실의 한 부분을 드러내게 된다. 언(言)과 행(行)은 함께 가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말은 육(肉)이 된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의사소통의 과정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치료를 받는 자와 치료하는 자의 위치는 수시로 바뀐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다른 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해의 과정이야말로 이상에서 현실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완전해질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감정을 부인할 필요도 없다.

여기 또 하나의 분명한 진실이 있다. 진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해 또한 지성과 몸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재의 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의 직감과 가슴의 소리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땅’에도 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머리로 배운 이론의 세계에서 우리를 안팎으로 둘러싸고 있는 실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계로의 이동이 관건이다. 진리는 땅에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사상가, 서책, 전통, 조상, 종교적 믿음에서 전해진 진리의 세계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천상의 진리와 하늘의 진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천상의 진리는 땅의 진리에 의해 입증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듣는 방법을 배워야하며 그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별을 보며

이해인

고개가 아프도록 / 별을 올려다본 날은  
꿈에도 별을 봅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면 / 반짝이는 기쁨이  
내 마음의 하늘에도 / 쏟아져 내립니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혼자일 줄 아는 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 자리를 지키는 별  
나도 별처럼 살고 싶습니다

얼굴은 작게 보여도  
마음은 크고 넉넉한 별  
먼데까지 많은 이를 비추어 주는  
나의 하늘 친구 별

나는 날마다 / 별처럼 고운 마음  
반짝이는 마음으로 / 살고 싶습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윤수 박상호 김정길 최숙화 박지인 서원금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최종원 원인해 이성운 김지호 전해리 박권동  
 장원호 박성희 전 용 이영우 정한구 왕영순

### 월정헌금:

김승현 김수진 김윤정 배부레 서정순 김정섭 이갑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의일 이현숙 김문주 최윤희 구명자 이봉옥 이영우 이경남  
 이증자 무명

### 감사헌금:

김승현 김수진 한지혜 배재경 이수정 유은정 김지호 전해리 문영혜  
 권혁신 이유일 김미희 송원길 정수복 장미란 강인숙 송만식가족  
 무명5

### 녹색꿈헌금:

이봉옥 최경미

### 생일헌금:

윤정덕 김영혜 김경수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심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9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순서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2. **연합속회** : 속회가 개학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3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3. **탁구** :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8월 체육행사는 탁구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남영역 건너편 2층 탁구장에서 모입니다.
4. **신앙실천** : 무더위가 조금씩 가시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하고 말씀묵상에 힘쓰십시오.

\* 대접 : 식사, 떡, 커피 (김정섭 권사님택)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다음 주 : 다메섹 속)

\* 설거지 봉사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다음 주 : 김승일 김경선 광상준)

\* 새교우 : 김성은(5남) 이윤주(7여) 문병남(2남) 문하나(4여)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